

최재은,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 초청...한국작가 6년만

24 February, 2016 | 김정선 기자

page 1 of 2



설치 미술가 최재은(63)이 비무장지대(DMZ)를 배경으로 한 '꿈의 정원 프로젝트'로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에 참가한다.

국제갤러리는 최 작가가 5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에 초청받았다고 24일 밝혔다.

1970년대 중반 일본으로 떠났던 최재은은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일본관 작가로 선정된 경력이 있다.

최 작가는 지난해 11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건축가 반 시계루와 공중정원 프로젝트에 대해 강연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힌 적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매설된 지뢰에 대한 염려를 덜고 사람과 생태계를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상 3~6m 높이에 총 15km 길이의 공중정원 13개를 만들고 그곳에 '바람의 탑'을 두 군데에 세운다는 것이다.

당시 최 작가는 '땅을 꿈꾸며'(Dreaming of Earth)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한탄강을 낀 곳 공중에 조그만 길을 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20년 전부터 아프리카 케냐, 한국의 경주 등지에서 여러 겹의 종이를 땅에 묻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것을 다시 꺼내 그 위에 생성된 얼룩과 이미지를 보여주는 지중(地中)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년 전 열린 2014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선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건축 100년을 조망한 한국관이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지난해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본전시에선 임흥순 작가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은사자상을 받았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짝수해엔 건축전이, 홀수해엔 미술전으로 열리고 있다.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총감독인 칠레 출신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는 지난해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를 건축전 주제로 제시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계 도전과 결과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067200005.HTML?input=1195m>